

금		16° 3°
토		18° 2°
일		17° 1°

칠레한인신문



KRW	1,122,50
CLP	678,57
KOSPI	2,032,72
UF	26,210,8

2016년 9월 2일 금요일 1928호

chile.korean.net


☎ 2-2777-3540

newscorea@gmail.com

2016년 청년세미나

떨쳐라! 청년의 꿈을!



주제: 칠레경제와 한국기업, 한인청년
강사: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박성기 관장
 LG전자 칠레법인 허동욱 법인장

대상: 취업 및 창업에 관심있는 칠레 거주 한인청년
일시: 2016년 9월 9일(금) 19: 30 (저녁제공)
장소: 스텐포드호텔 (Coronel 2380, Providencia)

제5회 중남미 한인회 총연합회 국제대회 칠레 개최

중남미 한인회 총연합회는 지난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간 산티아고 스텐포드 호텔에서 제5회 중남미 한인회 총연합회 국제대회를 개최하였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에콰도르 칠레 등 5개국 한인회장들과 중남미 총연고문 및 자문위원이 참석한 본 대회는 26

일 10시 개회식을 갖고 공식일정에 들어갔다. 이 날 행사에는 전날 주칠레대한민국 대사 만찬을 열어주신 유지은 대사님이 참석하여 격려 말씀을 해 주셨으며 중남미총연은 2회 개최를 후원에 주신 유지은 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중남미 총연 국제대회는 정기총회를 겸

하고 있어 이 날 정기총회를 통해 금년 임기를 마치는 박세익 총회장의 뒤를 이어 차기 총회장으로 우루과이 한인회 이형만 회장을 추천투표를 통해 선출하였다.

이후 한봉래 칠레한인회장 주최 오찬을 비원에서 가졌으며 다과와 환담 후 비나 지역 방문행사를 가졌다. /중남미한인회총연합회



[독자 기고] 칠레의 토착문화 "마푸체"

이 글은 www.southamerica.cl 이라는 문화사이트에서 마푸체 문화에 관한 글을 번역한 것입니다. 칠레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땅의 토착문화인 마푸체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흥미로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푸체 문화

칠레 남쪽에 아직도 남아있는 오래된 이 문화의 마푸체인들은 고난의 기간을 거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려움 속에 처해 있지만, 그들은 언제나 자유와 독립을 누리고 있다. '마푸체'라는 이름은 '땅의 사람'을 의미한다.

역사

마푸체인들은 끊임없는 외세의 도전으로부터 독립을 지켜온 자랑스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

스페인인들이 처음 지금의 칠레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칠레 남부의 비옥한 골짜기에서 주로 사냥과 채집을 하며 작은 부족단위로 어렵지 않게 살고 있었다. 그 당시 그들이 부족단위 사회로 살고 있었다는 사실은 발전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스페인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준 이유가 되기도 했다. 다른 문명으로부터 분리된 채 살아감으로써 그들은 이웃한 잉카문명처럼 더 이상 크게 발전할 수 없었다. 반면, 스페인이 페루에서처럼 문명을 한번에 날려버리는 방식으로 그들을 처리할 수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마푸체가 부족단위로 생존해온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스페인인들이 어떤 마푸체 부족을 토벌하려 할 때, 다른 부족이 숲으로부터 나와 그들의 배후를 공격하곤 했다. 스페인들과 마푸체인들의 이런 형태의 전투는 약 300년동안 지속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잘 알려진 '아라우코 전쟁 (ARAUCO WAR)'이다. 수많은 마푸체 전사들이 수백년간 이러한 전투방식으로 스페인의 정복에 대항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역사적으로 스페인은 비오비오강 남쪽을 점령해 본 적이 없다.

칠레가 독립을 선언한 이후 스페인으로부터 새로 온 많은 정착민들이 마푸체의 땅으로 넘어 들어갔다. 새로운 칠레정부는 한편으로는 군사적으로 압박을 통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외교적 타협을 통해 마푸체가 이 땅에서 칠레 정부와 함께 살아갈 것과 그들의 땅을 공유한다는 내용의 조약을 서명토록 이끌어냈다.

현재 칠레인구의 약 4% 정도를 구성하는 마푸체인들은 대부분 다른 칠레인과 섞이지 않고 칠레의 남부, 떼무코 근처 그리고 일부는 아르헨티나 산맥 근처에 살고 있다.

칠레인들은 스페인정복자들과 용감히 싸운 마푸체 전사에 대한 역사에는 자부심을 갖지만, 지금도 두 문명 사이에서는 긴장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마푸체인들이 경제적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해 대도시로 이주하며 칠레의 문화에 동조되어 가고 있다.

마푸체 언어

마푸체인들은 쓰는 고유어는 마뽀둔구(Mapundungu)라 한다. 스페인이 들어왔을 때 마뽀둔구(Mapundungu)어는 기록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라틴식 언어기록방식을 차용해 기록되기도 했지만, 마푸체 발음을 그대로 라틴식 알파벳 방식으로 기록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약 2만명의 마푸체인은 오직 그들의 고유언어만을 사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마푸체인들은 마푸체어와 스페인어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이제 마푸체가 아닌 칠레인들이 마푸체어를 배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마푸체어(Mapundungu)의 자취는 지명에 남아있어 현재 많은 도시와 지역이 마푸체식 이름을 가지고

있다.

마푸체어(Mapundungu)는 주변의 케추아어(Quechua: 과거 중앙 안데스 원주민 언어)와는 달리 독립적으로 발전되어 왔기에 주변의 다른 언어와 유사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늘날 마푸체어는 두가지 주요한 방언으로 이뤄지고 있다.

마푸체 전설

단편적으로 내려오는 전설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칠레에서 가장 인기있는 콜로콜로(COLO COLO) 축구팀 이름은 마푸체 전설의 동물에서 따온 것인데, 그 동물은 외형상 뱀, 숫닭, 쥐 등을 닮은 모습에 갓 태어난 아이의 울음을 운다고 한다.

갑자기 모습을 바꾸어 어떤 동물로든 변신하는 페우첸(Peuchen)이라는 괴물은 많은 마푸체인들을 두렵게 한다. 그 괴물은 인간이나 동물 등 자신의 먹이감을 꼼짝못하게 해 피를 빨라고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고대 문명처럼 마푸체에도 대홍수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

오래 전 두 마리 거대한 뱀이 있었는데 한 마리는 물의 수호자(Kai Kai)였고 다른 한 마리는 땅의 수호자(Tren Tren)이었다. 까이 까이가 적인 트렌 트렌의 땅을 침범하려하자 트렌 트렌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산으로 데려갔다. 그 뒤 물이 빠지고 사람들은 다시 골짜기로 돌아가 땅에서 번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현재의 모습

오늘날 마푸체인들은 그들의 땅을 계속해서 소유하기 위해 칠레정부와 대립하고 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땅을 잃어버린 후 빈곤한 삶으로 추락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변화하는 외부세계의 거대한 영향으로 그들의 전통과 문화를 유지하는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있다. /기고자 박유준

2016년도 제9차 슈퍼시니어 골프대회

- 수 신 : 한인 슈퍼시니어 골프회 전회원
- 일 시 : 2016년 9월 8일(목) 11시 티오프
- 장 소 : La Dehesa Golf Club
- 참가비 : 10.000페소 (그린피/캐디피 각자 부담)
- 시 상 : 베스트넷 1, 2, 3등, 장타, 근접
- 시상 및 만찬장소: 하루리 식당 19시 30분 (부부동반)

※ 제9차 대회를 후원해주신 INSUN 이광호 사장님과 저녁만찬을 초대해주신 유명오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고르지 못한 일기에 건강을 기원합니다.

칠레한인슈퍼시니어 골프회장 정 대 호

칠레한인신문
http://chile.korean.net

창간 1995년 2월 18일
발행 칠레한인회 / 매주 화, 금 2회
발행인 한봉래 / 편집인 김홍식
전화 2-2777-3540
e 메일 newscorea@gmail.com
주소 Rio de Janeiro 435, Recoleta Santiago, Chile
계좌 Banco BBVA-Asociacion Coreana No.0141-010000 9835 RUT 71.726.000-7

한글학교 소식

안녕하세요?

성큼성큼 다가오는 봄을 시샘하듯 반짝 추위가 불쑥 찾아와 놀라게 하는 환절기입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한글학교 소식을 알려 드립니다.

1. 지난 8월 25일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스탠포드 호텔 세미나실에서 재칠레한국한글학교 교사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연수에서는 한경희 교장, 유미 교감, 황윤하 교사 등이 겨울방학동안 파라과이에서 실시된 제12회 남미 한글학교 합동교사 연수(7/25 ~7/28)와 한국에서 재외동포재단 주최로 개최되었던 재외한글학교 교사초청 연수(7/3~7/9, 유미 교감 참석)를 통해 전수받은 내용을 교사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비주얼 씽킹(Visual thinking), 교재의 개작 및 부교재의 제작, 한글 발음의 원칙 등 학습의 효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또 교사들의 소명의식을 점검하는 한편 한글학교를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알찬 시간을 가졌습니다.
2. 9월부터 특별활동을 시작합니다. 2학기에는 태권도부와 기악합주부가 신설되어 총 10개의 특별활동반이 운영됩니다. 태권도부는 Santiago Christian Academy(SCA) 방과후 수업 교사이신 공인 3단 강이래 선생님이 특별히 수고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기악합주부는 이탈리아에서 성악을 전공하신 여정은 선생님이 담당하십니다. 총 6회에 걸쳐 실시될 특별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한글학교 생활을 누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3. 김종백(새싹5반 김태영 부)님께서 한글학교 운동장에 최신형 축구골대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푸른 잔디밭에 설치된 축구골대는 평소 쉬는 시간에 뛰어 노는 아이들과 특별활동 축구부원들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4. 김영수(조혜란)님, 이남진(지연희)님, 장준영(김일화)님께서 각각 8월13일과 20일, 27일 교사 점심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신 덕분에 16명의 정교사와 8명의 보조교사들이 맛있게 식사하고 아이들을 가르칠 힘을 얻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재칠레한국한글학교 교장 한 경 희

칠레, 8.30(화)부터 아포스티유 발급 서비스 개시

2016년 8월 30일부터 칠레에서 아포스티유 발급서비스가 시행됩니다. 따라서 칠레에서 발급된 공문서를 한국 내 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복잡한 절차(공증사무소, 법무부, 외교부, 대사관)를 더 이상 거치지 않고 칠레의 공공기관에서 무료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아포스티유(Apostille)란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국가 간에 각국에서 발급된 공문서 또는 공증문서에 대해 (영사)인증을 받지 않아도 상대국에서 정당한 문서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문서 종류별로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칠레 아포스티유 홈페이지(<http://www.apostilla.gob.cl>)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부(Ministerio de Educacion)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 주민등록청(Servicio de Registro Civil) : 출생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등
- 보건부(Ministerio de Salud) : 진단서 등 의료관련 문서
- 법무부(Ministerio de Justicia) : 공증된 문서
- 외교부(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 공공기관 발행 공문서

주칠레대한민국대사관

청와대도 '김영란법' 교육... "밥 살 경우엔 해장국집에서"

청와대 직원끼리라도 인사수석실과 식사할 경우 법 적용

"앞으로 미리 양해하고 내 밥값은 내가 내도록 할 것"

다음 달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놓고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청와대에서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교육이 진행됐다.

31일 청와대에 따르면 청와대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29~30일 이틀간 위민관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교육했다.

이번 교육은 정부 부처별로 진행되는 교육의 하나로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국민권익위 관계자가 김영란법이 만들어진 배경과 의미,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과 일반적인 적용 사례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청와대 직원끼리라고 해도 인사수석실 등 특정분야 업무 담당자와 식사할 경우 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내

용의 설명 등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육을 받은 한 직원은 "위낙 복잡한 법이긴 하지만 교육을 받으니까 이해가 되고 도움되는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법 적용 사례가 아직은 분명하지 않고 업무 추진을 위한 식사 금액 등도 제한하고 있어 일각에선 초기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일단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3만원(식사), 5만원(선물), 10만원(경조사비) 등으로 규정된 가액기준을 충실히 지켜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업무특성상 언론 또는 여의도 정치권과 접촉할 수밖에 없는 홍보·정무라인 역시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앞으로 미리 양해를 구한 뒤 내 밥값은 내가 낼 것"이라면서 "만약 내가 사야 할 경우에는 해장국집

에서 만나자고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책 관련 수석실의 업무 협의 관행도 변화할 것인 전망이다.

업무 진행을 위해 관련 부처 직원들과 만나더라도 김영란법상 제한 범위 내에서 접촉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한 직원은 "해당 비서관실에서 업무 협의를 위해 장·차관을 만나더라도 김영란법이 적용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김영란법 시행령상 허용되는 가액 기준 변경을 요청했던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관련 수석실 직원들은 관련 산업의 위축을 걱정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한 직원은 "그동안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농수산물 산업 정책을 시행했는데 김영란법 기준에 따르면 이런 제품들은 앞으로 판로를 찾기 쉽지 않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홍용표 "北김정은, 대북제재로 통치자금 감소하자 압박받아"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대북제재의 효과와 관련해 "북한의 달러경제, 지도자층의 통치자금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비핵화 국제회의'에 참석한 홍장관은 30일 알마티의 한 호텔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의) 통치자금이 줄었고 이로 인해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을 비롯한 지도층이) 압박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장관은 "북한은 대북제재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인민경제를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북한을 통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 6개월 경과에 따른 효과를 평가했다.

그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경제지표를 보면 7월 북·중 교역규모는 6월에 비해 줄었다"며 "6월에는 다소 늘었지만, 4월부터 추세를 보면 감소하고 있다. 이는 대북제재효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탈북민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대북제재의 영향"이라며 "태영호 공사의 탈북 사례도 있듯이 지금 북한은 자금부족을 겪고 있고 해외파견자들에게 자금을 보내라고 압박하고 있고, 당사자들이 힘들어한다고 한다. 그런 것이 탈북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심각한 균열조짐', '내부동요 가능성' 등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북한의 잘못된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얘기를 하면 북한이 싫어하니까 하지 말아야겠다'는 등의 북한 눈치를 보는 식의 대응은 안한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원래 입장"이라고 말했다.

홍장관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 '레짐 체인지'로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서는 "레짐 체인지를 목표로 정부가 정책을 펼 수는 없다고 본다"며 "북한은 비정상적인 상황이고, 체제에 문제가 있다. 핵개발에 집착하면 스스로 고립되고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비핵화를 선택하고 국제사회로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카자흐스탄 비핵화 사례가 북한에 주는 교훈에 대해서는 "카자흐스탄은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고, 이를 통해 경제발전을 했다"며 "카자흐스탄이 1991년 독립했을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이 800달러였는데 이후 1만3천달러까지 올라갔다. 북

한은 지금 약 1천달러인데 카자흐스탄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자흐스탄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핵보유국으로 남았다면 이런 경제성장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라며 "북한도 그런 결심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장관은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되는 북한인권법의 의미에 대해서는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북한 주민에 대한 메시지도 있지만, 북한 당국을 향해 고쳐야 한다는 메시지도 있다"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대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인권법의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해외 파견 북한근로자는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제3국에 있는 탈북민은 법적,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사항이고, 정치적으로 찬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장관은 북한 인권제재 명단 발표 여부에 대해서는 "당장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며 "법에 따라 정부가 북한 인권 실태조사를 공식적으로 하고 그것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그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추경 지연 속 경기위축 지표로 확인..."갈수록 더 어렵다"

한국경제의 위기를 알리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상반기 미약하나마 개선세를 보이던 경기가 하반기 들어 생산과 소비, 투자의 동반 위축이 나타나면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는 모습이다.

대내적으로 구조조정과 실업, 파업 등 악재가 쌓인 가운데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외변수 역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와 구조조정을 지원할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국회 벽에 가로막히면서 애초 기대했던 정책효과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경기하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를 보완할 대응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상고하자' 현실화...생산·소비·투자 다 꺾였다

하반기 첫 달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는 마이너스 투성이었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0.1% 줄어 3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광공업생산은 14% 늘며 약진했지만 서비스업 생산이 0.7% 감소하며 전체 산업생산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서비스업 생산이 마이너스로 내려간 것은 올해 1월(-1.2%) 이후 6개월 만이다.

그동안 광공업생산이 증감을 반복하는 가운데서도 서비스업은 6개월 내리 호조를 보이며 전체 산업생산을 이끌어왔다.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도 전월대비 2.6% 감소, 2014년 9월(-3.7%) 이후 거의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내렸다.

7월 소매판매는 올해 상반기 소비를 지지해 온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끝난 직후 처음으로 발표되는 지표였기에 시선을 끌었으나 소비 절벽 우려만 확인했다.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가 9.9% 줄었다. 특히 승용차 판매는 26.4%나 뒷걸음질 쳤다.

7월 설비투자는 2003년 1월(-13.8%) 이후 가장 큰 11.6% 감소했다.

◇ 경기 살릴 추경은 국회 통과 지연...

지표 악화 가속화될 듯

하반기를 여는 7월 지표의 부진은 이미 예견돼 왔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5월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조선과 해운 등의 구조조정으로 제조업이 부진을 지속하고 서비스업 증가세가 점차 완만해지고 있다며 올해 경기가 상고하저가 될 것으로 내다본 바 있다.

개소세 인하, 재정 조기집행 등의 정책효과 종료 역시 상고하저를 부추길 요인으로 꼽혔다.

그만큼 하반기 경기 위축은 '변수'가 아닌 '상수'로 여겨졌다.

여기에 자동차업계 파업,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등 앞으로의 경기하방요인도 산재해 있다.

현대차 노조는 임협 과정에서 7월 19일부터 나흘 연속 부분파업, 여름휴가 직후부터 매주 3차례 파업하는 등 모두 14차례 파업했다.

회사 측은 노조파업으로 자동차 6만5천500여대를 생산하지 못해 1조4천7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7월은 물론 8월 산업생산도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는 이유다.

국내 1위 컨테이너 선사인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한국 경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형국에 몰리고 있다.

브렉시트와 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변수 역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기업 경기실사지수(BSI) 조사결과에 따르면 9월 종합경기 전망치는 기준선 100에 못 미치는 95.0으로 나타났다.

BSI 전망치가 100을 웃돌면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들이 더 많다는 뜻이고 100을 밑돌면 그 반대다.

BSI는 5월에 102.3으로 정점을 찍은 뒤 6월 94.8, 7월 90.5, 8월 89.5, 9월 95.0으로 4개월 연속 100을 하회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한 달이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회에 11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이미 수차례 처리가 무산되면서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애초 정부는 8월 초순께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9월을 전후로 집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3분기에 추경을 100% 집행할 경우 올해 성장률 제고 효과는 0.129%포인트, 창출되는 일자리 수는 2만7천개다.

그러나 집행률이 50%로 떨어지면 효과는 각각 0.121%포인트와 2만5천개로 줄어든다.

◇ 전문가 "내수위축 더욱 심각해질 것... 장기적 대책 필요"

정부 역시 경기위축을 우려하면서 대내외여건을 감안한 대응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7월 산업활동동향에 대해 "승용차 개소세 인하 종료 등 정책효과 약화로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조정받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구조조정과 미국 금리인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고용이 둔화하고 생산·투자 회복이 지연되는 등 경기하방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개소세 인하 등 정책효과가 사라지면서 당분간 내수 위축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앞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설비투자 감소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소비나 수출이 극적으로 늘지 않는 이상 설비투자가 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는 만큼 통화정책은 가용한 수단이 아니다. 재정정책도 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구조조정 기업의 유출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김영란법으로 영향을 받을 농가들의 업종 전환을 지원하는 등 충격이 예견되는 부문들에 대한 보완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추경을 통한 경기부양은 심한 경기 위축을 막는 일시적 효과만 있을 뿐 잠재성장동력 하락을 막기는 힘들다"면서 "구조개혁 등 장기적 측면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트렁크 살인' 김일곤 2심도 무기징역..."전혀 반성없어"

법원 "공공장소서 불특정 여성 상대로 범행해 사회불안 조성"

여성을 차량째 납치해 끌고 다니다가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트렁크 살인사건' 범인 김일곤(48)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31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무 잘못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고도 수사 와 재판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 가족들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혔을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이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시내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범행해 불안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금까지 사형이 확정된 여러 사건을 검토해봤을 때 계획적인 범행이었거나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김씨 범행보다 더 무겁다고 볼 만한 측면들이 있었다"며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검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울러 "사형은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궁극적인 형벌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선고해야 한다"며 "1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으로도 김씨를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함으로써 재범 가능성

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앞선 항소심 공판기일과 마찬가지로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법원 등에 따르면 김씨는 변호인이나 전문심리위원과의 면담을 모두 거부한 채 법정 출석을 거부해왔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9월 9일 충남 아산의 한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A(당시 35·여)씨를 차량째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유기해 불지르는 등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오토바이 접촉 사고로 시비가 붙어 벌금형을 선고받자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에게 복수하는 과정에 A씨를 이용하려고 납치했다고 주장해왔다.

/연합뉴스

포스텍, 내년부터 '무학과'로 전 입학생 선발

4년간 교수 150명 신규채용...50명은 기업과 함께 뽑는 '산학일체교수'로 교수승진 연한도 없애...김도연 총장 "대학문화 바꾸는 플래그십 역할할 것"

포스텍(포항공과대학교)이 내년 입시부터 학과 구분 없는 '무(無)학과' 입시로 모든 학생을 선발한다.

또 올해부터 4년간 교수 150명을 새로 채용하고 이 중 3분의 1은 기업이 인건비를 함께 부담하는 '산학일체교수'로 뽑는다.

김도연 포스텍 총장은 31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내용의 과격적인 교원 채용 및 입시제도 변화 계획을 소개했다.

이같은 변화는 12월31일로 개교 30주년을 맞는 포스텍의 미래 30년을 준비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김 총장은 "대한민국 최초로 '연구중심대학'을 표방했던 포스텍이 개교 30주년을 맞는다"라며 "새로운 30년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다 포스텍이 대학문화를 바꾸는 플래그십(Flagship, 기함)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가장 큰 변화는 입시제도로, 2018학년도부터 모든 신입생을 학과 구분 없이 단일계열로 뽑는다. 일부 정원(70명)을 단일계열로 뽑던 것을 전체 학생

으로 확대한 것이다.

학생들은 입학 후 1년간 다양한 학과를 탐색하고 선배·교수와 교류하며 진로를 고민한 뒤 학과를 결정하게 된다.

이미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대학인 카이스트 등은 이같은 방식을 적용하고 있지만 교육부 산하 대학에서 단일계열 선발을 하는 것은 포스텍이 처음이다.

학교측은 입학 후 학생 유치를 위해 경쟁하는 과정에서 각 학과의 경쟁력도 자연스럽게 길러질 것으로 기대했다.

교수 채용에도 변화가 생긴다. 포스텍은 현재 전임교원 272명의 50%가 넘는 150명을 올해부터 4년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이같은 대규모 채용은 개교 30주년을 맞아 포스텍 초창기부터 있었던 교수들이 정년 퇴직을 하면서 생기는 인원을 보충하는 의미도 있다.

특히 3분의 1인 50명은 기존의 채용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체와 함께 선발하는 '산학일체교수'로 선발한다.

산학일체교수 제도는 대학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인력을 교수로 채용하고 인건비는 기업과 대학이 공동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포스텍은 첫 파트너로 LG디스플레이와 협력해 이미 전자전기공학과에서 산

학일체교수를 선발했다.

교수 승진에 필요한 의무재직 연한도 없앤다. 현재는 조교수에서 부교수가 되려면 4년을, 부교수에서 교수 승진을 하려면 5년을 근무해야 한다.

포스텍측은 "우수한 신진교수가 조기에 정년보장을 받아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년보장을 받은 30대 정교수도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학과 구조는 공동 연구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학과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추진 중이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연구로 유기적인 관계인 전자공학과와 컴퓨터공학과, 창의아이티(IT)융합공학 같은 학과를 통합해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올해부터는 겨울방학을 줄이는 대신 여름방학을 3개월로 늘렸다.

이 기간 인턴십이나 해외 프로그램, 봉사활동 등을 하며 다양한 사회경험을 쌓으라는 취지다.

인턴십 프로그램도 학교에서 마련했다. 글로벌 기업이나 국내·외 연구소, 벤처와 동문기업에서의 인턴십 프로그램인 '하계 사회경험프로그램'에는 올해 257명의 학생이 참여했고 내년에는 500명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총장은 "포스텍은 '연구중심대학'에서 이제는 '가치창출대학'으로 성장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흑인표 구매' 트럼프 "민주, 노예제-흑백분리법 지지한 정당"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흑인 표심을 잡기 위해 연일 열변을 토하고 있다.

트럼프는 30일 밤 워싱턴 주(州) 에버리트 유세에서 민주당과 본선 맞상대 힐러리 클린턴이 흑인을 이용하고 억압하고 거둬 비판했다.

트럼프는 "기억해라. 공화당이 바로 (노예해방에 앞장선) 에이브러햄 링컨의 정당이다. 또한, 공화당이 자유, 평등, 기회의 정당인데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것을 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예제와 짐크로우법(흑백분리법)을 지지하고 (노예제 폐지에)

반대한 정당이 바로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오늘 밤 나는 더 나은 미래와 진짜 긍정적 변화를 원하는 이 나라의 모든 흑인과 히스패닉 유권자들이 나에게 투표해 주길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도심 빈민가는 민주당이 너무 오랫동안 장악해왔다"면서 "민주당과 클린턴의 정책은 오로지 가난과 실직, 실패한 학교, 붕괴한 가정, 높은 범죄율만 양산했을 뿐이며 이런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그들은 당신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이 같은 언급은 현재 클린턴에게 절대적 지지를 보내는 흑인들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한 행보이지만, 오는 11월 8일까지 흑인들의 표심이 얼마나 돌아설지는 불투명하다.

여론조사기관인 모닝컨설트는 최근 여론조사(24~26일·2천7명) 결과를 보면 클린턴의 흑인 지지율은 79%로, 5%에 불과한 트럼프에 크게 앞섰다.

트럼프는 흑인표심 구매차원에서 노동절(매년 9월 첫째 월요일) 주말인 다음 달 3일에는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의 흑인 교회, '위대한 믿음을 가진 목사들'(GFM)에서 연설한다.

연합뉴스

英 메이 "뒷문 통해 EU 잔류하려는 시도 없을 것"

내각회의서 EU 탈퇴 강조... "대기업들 무책임 행위에 강력 대처"

유럽연합(EU) 탈퇴 협상 전략을 둘러싸고 영국 내각 내 충돌이 빚어지는 가운데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영국의 유럽연합(EU) 이탈(브렉시트·Brexit)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메이 총리는 31일 오전 중부 버킹엄셔에 있는 총리 별장에서 주재한 내각회의에서 "뒷문을 통한 EU 잔류 시도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브렉시트는 브렉시트를 뜻한다'는 것을, 제2의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를

(EU 탈퇴를) 이행한다는 것을 계속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필요한 조치들을 해야 하는 지금은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

며 EU에서 성공적으로 탈퇴해 "국제사회에서 영국의 긍정적인 역할을 구축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메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영국이 EU에서 떠나 성공할 방안들을 찾을 것을 내각 장관들에게 주문할 것이라고 가디언 등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다.

또한 메이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정 비전으로 제시한 "모두를 위한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개혁 방안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두를 위한 국가, 정부,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몇몇 조치들에 대해서 논의하려 한다"며 "배경보다는 자질과 노력이 성공을 결정하는 사회를 만들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메이 총리는 "대기업들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히 대처해 모두가 이 나라의 번영을 공유하는 방안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해 대기업들을 겨냥한 정책들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中 양자택일 강요 전략으로 사드 압박... 주변국에 '심리적 협박'

중국이 거대 시장이라는 경제적 혜택을 내세워 주변국들에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략으로 한국과 싱가포르, 호주 등 지역국들이 잘못된 딜레마에 처해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1일 지적했다.

유럽에서 노골적인 군사력을 앞세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와는 달리 이미 세계 수준의 막강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거대 시장의 경제력을 내세워 주변국을 압박하는 중국의 전략을 WSJ은 싱가포르 외교관의 말을 인용해 '수동적 공세 외교'로 지칭했다.

중국은 수동적 공세 외교전략을 통해 주변국들로 하여금 역내에서의 중국의 우월적 지위를 사실상 인정하도록 하는 한편 주변국들이 자립을 명분으로 특히 미국과 협력에 나설 경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는 지적이다.

중국의 이러한 전략은 따라서 군사적 게임이라기보다 심리전의 일환이며 한국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개발에도 불구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놓고 자국 안보와 중국과의 관계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만약 한국이 사드를 배치할 경우 구체적 보복조치를 거론하지 않고 있으나 '불만의 함의'가 한국 당국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지난 2010년 중국 여선이 일본 해안 순시선과 충돌했을 당시 중국이 일본에 대해 희토류 금수조치에 나선 사실을 지적했다.

WSJ은 싱가포르의 경우 중국이 싱가포르 내 다수 중국계 주민과 경제적 혜택을 내세워 자국을 따르도록 '정서적 협박'을 가하고 있으나 싱가포르는 따

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 원자재수출을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있는 호주도 미국과의 관계강화 및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놓고 정부와 경제계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WSJ은 중국은 고래로 주변국들에 경제적 혜택을 베푸는 대신 자국을 우월국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수동적 공세 외교의 DNA를 갖고 있다면서 그러나 모두가 주권적 평등국이고 지역 경제가 상호 얽혀있는 현 상황에서 무역을 일방의 특혜로 간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변국들에 안보와 번영 사이에서 택일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새로운 동아시아 번영을 위한 선택들은 봉쇄하는 것이며 지역이 중국을 필요로하는 만큼 중국도 지역을 필요로하고 있다고 WSJ은 강조했다.

연합뉴스

‘외로운 늑대’ 공격 선동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의 대변인인 아부 무하마드 알아드나니(사진)가 시리아 알레포에서 사망했다고 IS가 30일 공식 확인했다.



IS의 선전매체인 아마크통신은 이날 “알아드나니가 시리아 알레포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해 작전을 감독하다가 순교했다”고 밝히고 보복을 다짐했다.

IS는 알아드나니가 어떻게 숨졌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미군 공습에 숨진 것으로 보인다.

피터 쿡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미군

이 이날 알레포 북동쪽 알바브에서 알아드나니를 겨냥한 공습을 했다고 말했다.

쿡 대변인은 이 공습으로 알아드나니가 사망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가 제거됐다면 IS에 중대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AP통신 등은 전했다.

알아드나니는 37~39세로 추정되며, 시리아 서부 이德利브 근교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라크 알카에다에 소속돼 있다가 IS의 핵심 조직원이 됐고 2011년부터 동영상과 음성메시지로 추종자들을 끌어 모았다.

특히 유럽과 미국, 아시아 등 세계의 추종자들을 향해 민간인들과 다중이

용시설(소프트타깃)을 노린 ‘외로운 늑대’들의 공격을 선동한 것으로 악명 높다.



그는 지난 5월22일 영상메시지를 통해 “총이 없으면 칼과 돌맹이로도 공격하라”라며 추종자들을 선동했다.

이후 튀니지의 휴양도시 수스의 리조트,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나이트클럽, 터키 이스탄불 국제공항, 프랑스 니스 해변 등지에서 IS 추종자들의 테러공격이 잇달았다.

알아드나니는 IS의 대변인일 뿐 아니라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에 이은 사실상의 2인자였다.

‘아므니’라는 특수부대를 만들어 시리아 내 전투를 지휘해온 사령관이기도 했다.

/경향신문

제7차 친선 한인시니어 골프대회 결과보고

수 신: 칠레 한인시니어 골프회 전 회원
일 시: 2016년08월25일 (목)
장 소: LA DEHESA G.C.

제7차 골프대회 시상자 회원님들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 메달 리스트: 김영수(5) ·베스트네트: 김남오(25)
- A조 1등: 김일환(9), 2등: 한정국, 3등: 강유석 ·B조 1등: 김인택(16), 2등: 김용진, 3등: 지상욱
- 장타: 원중수 ·근접: 남국현

이번 대회에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 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대회를 멋지고 아무 탈없이 치를 수 있게 후원해주신 최돈하 회원님께 감사드리며, 수상하신 모든 회원님들께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일기가 고르지 못한 날씨에 감기몸살, 설사병까지 동반하는 이번 바이러스를 조심하세요.

한인시니어 골프회 회장 남 국 현

광182-1



LED 전구

Dos20 Soluciones Iluminarias
Diseño y Eficiencia
www.dosveinte.cl



조명 판매 합니다 LED 가정용 상업용 공업용 소매 와 도매 도합니다
각종 전구 다마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전시장 Manzano 483
매장 전화 2-2735 0968
2-2735 0538

문의 전화 93095960
한시문 8819-2400

La nueva experiencia en LED eficientes en Chile

밤낮 없이 '빈뇨' 지속되면 '요붕증' 의심해보세요

평소보다 소변 양이 많아지거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면 혹시 몸에 이상이 생긴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

이러한 빈뇨증상으로 의심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은 '요붕증'이다. 다소 생소한 질환이지만 쉽게 말해 비정상적으로 소변을 많이 보고 또 이로 인해 많은 양의 수분을 섭취하게 되는 질환이다.

요붕증은 신장에서 소변을 재흡수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항이노호르몬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나타난다.

하루 소변 양은 체내 수분과 전해질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데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뇌하수체에서 항이노호르몬이 분비돼 소변 양을 줄인다. 하지만 항이노호르몬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의 소변이 생성되고 이로 인해 잦은 갈증을 일으키는 것.

성인의 경우, 물을 마시고 보통 하루 평균 2l 이하의 소변을 배출하는 반

면 요붕증 환자는 하루 약 3l 이상의 많은 양의 소변을 해결해야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양의 소변을 자주 배출하게 된다. 또 밤중에도 소변을 보기 위해 자주 깨고 다시 물을 마시는 것을 반복하게 돼 평소에도 기운이 없고 식욕이 감퇴하기도 한다.

요붕증은 항이노호르몬이 뇌에서 부족하게 분비되는 ▲중추성 요붕증과 항이노호르몬이 작용하는 신장(콩팥)의 이상으로 소변배출의 이상이 있는 ▲신성 요붕증, 일반적인 수분 과다 섭취로 인해 항이노호르몬이 억제돼 소변이 많이 배출되는 ▲일차성 다음증으로 나뉜다.

체내 부족한 수분으로 인해 혈액의 삼투압이 올라가고 뇌하수체 후엽에서 항이노호르몬이 분비돼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중추성 요붕증은 뇌의 외상이나 염증, 종양 등이나 선천적으로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생겨 발생한다.

신성 요붕증은 선천적이거나 다양한

약물, 신장질환, 전해질 이상으로 인한 후천적인 원인으로 신장세포가 항이노호르몬에 정상적인 반응을 하지 못해 발생하게 된다.

중추성 요붕증은 항이노호르몬을 보충하는 것으로 치료하지만 뇌의 시상하부나 뇌하수체 부근에 이상이 동반된 경우가 있어 뇌 CT나 MRI를 검사를 통해 종양이나 염증 등 뇌의 기저질환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성 요붕증은 저염식단과 함께 이뇨제를 복용하면 증상완화에 도움이 된다.

고대구로병원 내분비내과 정혜수 교수는 "중추성, 신성 요붕증의 경우 적절한 수분섭취가 안 되거나 요붕증이 심한 경우에는 쇠약, 발열, 정신장애, 허탈 증상 등이 생기고 심하면 고삼투압혈증으로 사망하기도 한다"며 "소변의 양이 많다고 자각하게 되면 전문의와 상담해 다뇨의 감별진단을 받는 것이 우선시돼야한다"고 말했다. /헬스경향

'태후' 단역 외국인배우, 대사관직원 사칭 사기 가담

대사관 직원을 사칭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아프리카 국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 중에는 인기 드라마에 단역으로 출연한 배우도 있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나이지리아인 E(34)씨와 카메룬인 M(30)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E씨는 올해 4월 난민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자신을 코트디부아르 대사관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인터넷에 글을 올려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E씨가 올린 글은 코트디부아르에 사는 스위스 국적 사업가 집안의 외아들과 유산을 관리해 줄 한국인을 찾는

는 내용이었다.

사업을 일으킨 남편은 일찍 죽었고 그 부인도 암에 걸려 곧 죽게 됐는데 그 외아들이 신앙심이 깊어 좋은 신학교들이 있는 한국에서 살고 싶어 하니 후견인이 돼달란 것이었다.

E씨는 이 글을 아프리카와 무역을 해온 국내 업체들에게도 이메일에 담아 보냈다.

E씨는 글을 보고 연락해온 김모(74)씨에게 40억원에 달하는 유산을 외교행낭으로 국내로 들여오려면 운반비나 관리비 등이 필요하다며 총 6천7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과정에서 M씨는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계좌에서 인출하는 역할을 했다.

M씨는 우리나라의 한 신학대학을 졸업한 뒤 '태양의 후예', '마담 앙트완' 등 주요 드라마에 단역으로 출연한 바 있다.

E씨와 M씨는 이태원을 오가며 아프리카 출신 외국인들과 어울리다 서로 알게 돼 범행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피해자와 주고 받은 이메일을 확인할 때 접촉한 지역이 인도 등 외국인 점, 피의자들이 살던 집에서 위조지폐를 만드는 데 필요한 물건들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아프리카를 기반으로 한 국제금융사기 조직과 연계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브라질 호세프 대통령 탄핵 확정

브라질 역사상 첫 여성 정상인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결국 탄핵당했다.

브라질 상원은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호세프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1표, 반대 20표로 통과시켰다.

탄핵안 통과에는 전체 상원의원 81명 가운데 3분의 2인 54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다. 비교적 여유 있게 통과된 셈이다.

상원 최종표결에서 탄핵안이 가결됨

에 따라 호세프는 30일 안에 브라질리아 대통령궁을 떠나야 한다. 2018년 말까지 남은 호세프의 임기는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 권한대행이 채운다.

탄핵 사유는 호세프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막대한 재정적자를 막기 위해 국영은행의 자금을 사용하고 이를 되돌려주지 않는 등 재정회계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2014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의 경제실적을 과장하기 위해 이

런 편법을 썼다는 것이 정치권의 주장이다.

호세프 대통령은 국영은행 자금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관례에 따른 것이며 위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하며 강하게 맞섰으나 판세를 뒤집지는 못했다.

테메르는 탄핵안 통과 즉시 의회에서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고, TV와 라디오를 통해 대국민성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신변안전 공지] 북한의 테러 위협에 따른 주의 당부

최근 북한 고위 인사가 탈북하면서 북한 정권은 추가 탈북과 내부 동요를 차단하고 우리사회의 혼란을 조장하고자 사이버 테러와 각종 위협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여러분께서는 평소 인터넷(전자메일)을 통한 해킹과 선동에 주의하시고, 특히 중남미 각국을 왕래하는 분들(지상사, 여행객, 선교단체 등)은 테러와 납치 등 신변안전 위협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칠레대한민국대사관

광176-2

【판 매】

◆ 콩나물 자동재배기 1대(한국산)
2.500.000페소

◆ 옥돌 아사도구이 기계 1대(한국산)
1.000.000페소

연락처: 9-5641-3674

2016년 한인회비 캠페인

동포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칠레 동포분들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칠레한인회는 동포여러분들의 소중한 회비로 운영이 됩니다. 성실히 납부해주시는 동포 여러분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혹, 아직 한인회에 등록을 못하셨거나, 회비 미납분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칠레한인회가 더욱 동포여러분의 입장을 대변하고 권익옹호에 앞장서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포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칠레한인회

광174-2



하나로 마트 Hanaro Mart

귀하의 건승과 사업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8월 30일(화) 『하나로 마트』(구.한국식품 위치)가 한국식료품 외에 신선한 야채와 생선 및 각종 반찬류로 귀하께 선보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tonia Lopez de Bello 566, Local 48

Tel_ 22 735 2907



노인회 소식

"주칠레 대한민국 유지은 대사 초청 경로잔치"

안녕하십니까?

일기의 변화가 심합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칠레 대한민국 유지은 대사께서 칠레에 거주하시는 65세 이상 어르신 전원초청 "경로잔치"가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참석하시어 즐거운 시간을 갖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16년 9월 3일(토) 오후 4시 30분

◎ 장소: 하루리 식당 2층 (전화 2-2732-1860)

- 감사의 말씀 -

1. 고려한의원 원장 박은영 께서 노인회원으로 가입하시고 회원들의 건강상담역의 중책을 맡으시어 수고해 주십니다.

2. "경로잔치" 마친 후, 한인의 날 기념행사를 대비 서순옥 복지이사 주관으로 노래연습이 있습니다.

※ 행사 종료는 6시 30분 입니다. 부모님 모셔갈 자녀들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칠레한인노인회 회장 장 흥 근

광175-2

가게 월세

MANZANO 496

계약기간 3년, 권리금 없음

- ▶가게 : 4m x 12m (모든시설 완비)
- ▶지하 창고 : 4m x 12m
- ▶Entre piso : 사무실
- ▶2층 창고 : 4m x 12m
- ▶3층 창고 : 4m x 12m

※ 연락처 : 최진호 (9-6226-3285)

광178-2

집과 가게(창고) 세 놓습니다

1층과 2층으로 되어있음 (3상 전기 2개)

Santa Filomena 251, 253

/ Rio de Janeiro

카카오톡 아이디: chilekorea

전화: 9-9915-4022, 9-8817-9047

광179

건물 월세

▶계약기간 3년 (권리금 없음)

- ▶1층 가게 460m²
- ▶2층 사무실 400m²
- ▶3층 사무실 400m²

▶주차장 40대 세울 수 있음

▶월세 275 UF

주 소 : Alameda con Almirante Latorre

연락처 : Samuel Hidalgo Lira

2-2318-5009 / 9-9742-9018



광172-2

Lotte Mart 개업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업의 번창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에 E-MART를 인수하여

LOTTE MART로 새로이 단장하여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찾아주셔서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교민 여러분들을 위하여

다양한 식품과 생활용품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업일 : 9월 9일 (금)

※ Volvik 골프공, 모자, 장갑 판매합니다

Eusebio Lillo 440 - 446, L-35

전화 : 2-2735-0888, 2-2777-7103

홈페이지 : www.lottemart.cl

LOTTE MART 김승환 올림

광169-4

Continental Travel Service
Since 1989 **대륙여행사**

세계어디든 모바일로 결제하자!

이젠 전자티켓의 시대입니다.
이메일과 카톡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대륙여행사로 티켓팅하세요!

cont89@gmail.com

카톡아이디 : cont89

213.386.3100 801 S. Vermont Ave. #201, LA. CA 90005 USA

공인
대리점
대한항공 * 아시아나 * IATA * ARC
LA한인타운 한 곳에서 27년 운영

철레출발 가장 저렴한 항공권

가장 저렴한 항공료는 기본! 편안한 여행! 안전한 여행!
당신만을 위한 맞춤서비스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 01 철레출발 가장 저렴한 항공권 제공
- 02 비즈니스 클래스 특별가격
- 03 엘에이 및 한국 호텔 예약
- 04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맞춤 서비스

광180-1

꿈과 감성을 디자인 하다.

진열장, 칸막이 맞춤 설계, 건축 설계
감리, 주거공간, 리모델링 상가공사
빠른 시공, 차별화된 인테리어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 전문업체
Sr. 박찬희 Cel. 9-8195-5928

광181-1

가나 여행사

"2016년 10월 16일부터 2017년 3월 18일까지
란칠레 엘에이 직항노선이 개시됩니다
예약하실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LA602 SCL/LAX 매주 화.금.일 -
- LA603 LAX/SCL 매주 월.수.토 -

- 전화번호: 2-2735-6395 (월~금/09시~18시)
- 주소: Dardignac 533 Of. 303C, Recoleta
- 이메일: sychoy@ganatouvents.com
- 카톡: ganatourchile

광158-7

Clinica Dental Cerro Blanco

Dr. 이선용

진료시간: 화요일 10:00 ~ 12:30
 금요일 14:00 ~ 19:00
 토요일 10:00 ~ 14:00

예약전화: Fono. 2-2777-5557
 Cel. 9-9820-8309

주소: Recoleta #901 Local 8
con Santos Dumont

광170-2

20% 할인 타이어

PIONONO MARSHAL

한국 지역 사회 봉사를 위한 특별 이벤트

Baterías:
10% dscto.

Cambio de pastillas
de frenos: 15% dsto.

Alineación:
\$11.990 c/iva.

Cambio de amortiguadores:
15% dscto.



가까운 지점 찾기

SANTIAGO

Providencia
Pío Nono N°235
Fono: 22 737 0057

Las Condes
Av. Chesterton N°7079
Fono: 22 964 9175

Lo Barnechea
Av. La Dehesa N°2230
Fono: 22 964 9175

Macul
Av. Macul N°5080
Fono: 22 283 9470

Las Condes
Av. Las Condes N°8038
Fono: 22 964 9170

Recoleta
Pío Nono N°222
Fono: 22 7353603

REGIONES

IQUIQUE
Iquique Souper
Arturo Prat N°602
Fono: 57 241 5868

IQUIQUE
Iquique Zofri
Manzana N°1 galpón 37
Fono: 57 242 4046

QUIQUE
Zofri Parts
Modulo 24/25
Fono: 57 242 5260

ANTOFAGASTA
Antofagasta
Av. Ant. Rendic N°6951
Fono: 55 289 5990

INFO: 600 3600 500 WWW.PIONONO.CL